인도경제 주간 동향

2019. 11. 15

< 목 차 >

1. 인도 10월 CPI 4.62% 기록, 16개월 中 최고치
2. 인도 내 보호주의 정책 경계 의견 대두
3. 인도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 시장 현황 및 전망
4. CEPA 재개정 선동에 인도 수입업계 불안감 확산
5. 인도의 남성 그루밍 시장 성장일로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1. 인도 10월 CPI 4.62% 기록, 16개월 中 최고치

- 인도통계청은 지난 수요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62%를 기록하며 지난 16개월 중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이는 블룸버그 34인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한 4.35% 보다, 특히 지난 9월 기록인 3.99% 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임. 물가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8년 8월 이래로 처음임

10월 인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단위: %)

- 10월 CPI 급등은 평년보다 길어진 우기로 인한 채소 공급량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식음료(food & beverages) 물가는 6.93%로 치솟았으며, 그 중에서도 채소(26%)- 특히 양파와 토마토- 및 콩류(12%)의 가격이 가장 높이 올랐음. 이 밖에도 육류, 생선, 달걀 물가 또한 높은 상승률을 보임. Barclays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훌 바조리아(R. Bajoria)는 이를 두고 "공급에 기인한 일시적 푸드 쇼크" 라고 일컬었음

10월 인도 식음료(Food & Beverage) 물가지수

(단위: %)

- 반면, 식음료 및 연료를 제외한 지수인 근원물가(core inflation)[1]의 경우 지난 달 4.02% 보다도 하락한 3.44%에 그쳐 최근 8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함. 이는 2019-20 회계연도 1분기 GDP가 6년 만에 최저치인 5%에 그친 열악한 경제상황을 반영함

10월 인도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

(단위: %)

- 이 때문에 블룸버그는 금 번 CPI가 인도 물가상승목표치인 4% 중반 대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통화정책위원회(IMPC)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봄. 금년에만 이미 13.5%가 인하된 바 있으나, DBS bank 이코노미스트인 라디카 라오(R. Rao)와 Crisil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조쉬(DK Josh)는 IMPC가 12월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더 0.25%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이코노미스트들은 금 번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며, 2019-20 회계연도 내내 예년 수준인 4%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출처 : Bloomberg)

작성 : 이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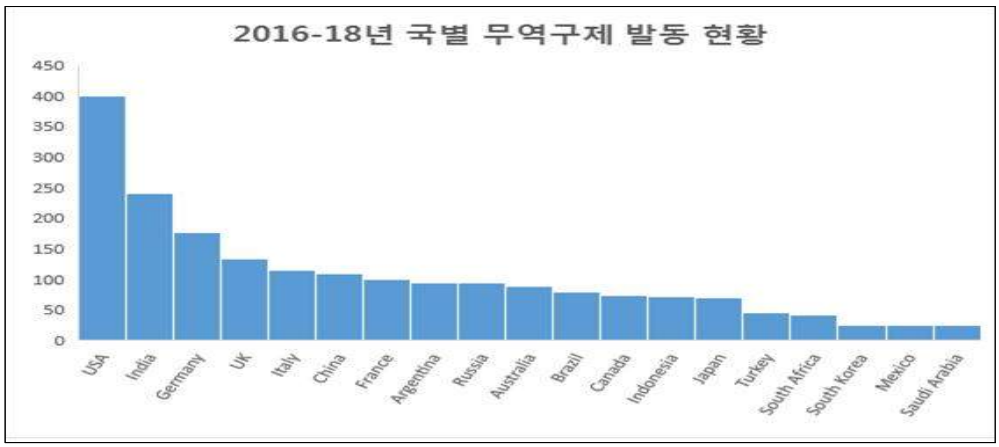
1) 경제상황에 따라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인 농산물과 연료를 제외하고 산출한 물가지수임. 일시적인 경제상황 보다는 기초 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임 (출처: 두산백과)

2. 인도 내 보호주의 정책 경계 의견 대두

- 인도 정부의 RCEP 탈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경제사이트 라이브민트(Livemint)는 최근 Global Trade Alert 분석자료를 인용, 인도의 RCEP 협상탈퇴로 인도의 산업과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했음[2)]

- 이 매체는 인도가 G20 국가중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하고 있어 지난 1991년 시장경제 도입이후 자유무역을 위해 기울인 이전 정부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동시에 인도가 가입할 수 있는 무역협정을 제한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특히 대부분의 수출제품이 수입 원부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음을 부각했음

- 라이브민트는 이러한 인도의 보호주의적 행보에 따른 3대 해악으로 ①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 ② 차후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난항, ③ 비협정국의 관세보복 등을 꼽았는데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G20국가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음



(출처 : Global Trade Alert)

작성 : 이은경

2) Protectionism should worry India (liveMint; 2019.11.12)

3. 인도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 시장 현황 및 전망

□ 손해보험시장 동향

- 인도 손해보험 시장이 점차 활력을 보이고 있음. 인도는 지난 7월 49%로 제한했던 외국 손보사의 지분을 100%로 늘려주는 조치에도 불구, 투자가 부진했음. 그러나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손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가계가 늘기 때문으로 주요 언론들은 분석했음

-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이달초 중국의 텐센트(Tencent)가 인도 스타트업이자 핀테크기업인 폴리씨바자르(PolicyBazaar)에 1.5억달러를 투자하면서 10% 지분을 인수했음. 폴리씨바자르는 온라인 손해보험 서비스 제공업체임

- 폴리씨바자르-텐센트와 같이 이종산업간 합종연횡으로 손해보험업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국영 Indian Overseas Bank는 온라인 보험사인 Universal Sampo General과 함께 은행이 판매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했음. 통신사 Bharti Airtel은 Bharti AXA Life Insurance와 손잡고 핸폰 요금제에 보험을 끼워팔고 있음. Digital Insurance와 Karur Vysya Bank는 중소기업 전용 방카슈랑스[3] 상품판매에 나섰음. 반면 시장을 이탈하는 해외 손보사도 있음. Insurance Australia Group은 State Bank of India와 10년간의 합작계약을 끝내고 SBI General에 지분의 26%를 매각키로 했음

인도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현황 및 전망

(단위 : 10억 달러, 전년비 증감률은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생명보험(증감)	62.2(8.9)	70.4(13.1)	67.8(-3.7)	70.1(3.3)	73.1(4.4)	77.9(6.5)	85.9(10.2)
손해보험(증감)	19.0(26.9)	23.1(21.3)	24.3(5.6)	25.9(6.3)	27.9(7.5)	30.6(9.8)	35.2(14.8)

(출처 : Fitch Solutions)

3)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합 형태(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

□ 손해보험 부문별 현황

- 인도 손보시장은 여전히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이 견인하고 있음. 두 번째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며 재산의 손해에 대한 부동산보험(property insurance)이 뒤를 이음

- 최근 피치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의료보험, 부동산 및 금융보험 등은 내년까지 두자리수 증가가 기대됨. 이중 의료보험의 경우 2019년 현재 4.3억명의 의료보험 수혜자가 있이며 이중 3.3억명은 정부지원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부문별 손해보험 시장규모 및 증감 전망

(단위 : 10억 루피, 전년비 증감률은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동차보험(증감)	503(18.8)	592(17.9)	647(9.2)	704(8.8)	7621(8.3)	823(8.0)	914(11.1)
의료보험(증감)	345(25.7)	420(21.6)	470(12.0)	518(10.1)	573(10.7)	635(10.8)	702(10.5)
부동산보험(증감)	95(9.2)	108(13.0)	124(15.1)	139(12.3)	158(13.4)	179(13.5)	202(13.1)
운송보험(증감)	51(9.5)	56(8.7)	62(10.3)	67(8.2)	73(8.8)	80(8.7)	86(7.9)
금융보험(증감)	18(15.0)	20(7.8)	22(13.4)	25(12.2)	29(13.7)	33(15.7)	38(15.9)

(출처 : Fitch Solutions)

□ 손해보험 업계 동향

- 현재 인도에는 34개의 손보사가 있으며 이중 4개는 국영으로 운영되며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 손보사들은 자금력과 경영 노하우에도 불구, 국영기업과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로 인해 시장점유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피치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민간손보사들의 성장률이 국영손보사를 제치고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음. 이

는 규제와 국영기업의 높은 장벽을 넘고자 하는 민간 보험사의 진출이 더욱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민간 보험업계는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물론이고 기업 대상 금융보험 부문에서 특히 국영기업의 영역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됨

인도 상위 손해보험업체 순위 및 원수보험금액 ('12~'17)

(단위 : 10억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New India Assurance	2,222.5	1,970.3	2,164.3	2,361.5	2,844.9	3,488.8
United	1,734.4	1,657.6	1,751.6	1,909.6	2,390.7	2,676.7
National	1,721.1	1,745.4	1,841.9	1,866.8	2,119.0	2,486.8
ICICI Lombard	1,148.2	1,170.6	1,094.1	1,261.2	1,596.3	1,897.6
Oriental	1,261.2	1,217.0	1,213.8	1,296.1	1,607.9	1,758.6
Bajaj Allianz	749.0	771.1	856.9	909.1	1,136.1	1,450.5
AIC	-	579.6	448.9	548.9	1,038.8	1,212.2
HDFC Ergo	459.2	496.3	521.4	526.8	590.0	1,119.5
IFFCO Tokio	480.1	500.4	545.6	575.4	828.1	864.9
Tata AIG	399.6	403.4	444.7	461.2	620.3	834.8
Reliance	376.2	407.9	445.0	435.1	585.7	778.4
Star Health	-	186.3	240.7	312.9	440.6	639.0
Cholamandalam	303.4	316.7	309.7	382.2	466.3	630.0
SBI General	144.3	202.8	258.4	318.0	387.6	544.3
Royal Sundaram	292.0	245.4	257.1	264.1	325.8	402.9
Universal Sompo	100.0	92.3	114.9	140.9	191.6	354.9
Shriram	288.5	257.9	245.2	266.9	312.9	322.6
Future Generali	206.9	215.6	235.7	242.4	270.2	292.8
Bharti AXA	228.1	243.0	238.7	198.7	195.6	269.3
Apollo Munich	-	118.2	131.6	159.3	193.8	263.8

(출처 : Fitch Solutions)

작성 : 이은경

4. CEPA 재개정 선동에 인도 수입업계 불안감 확산

- 인도 극우세력의 전위대격인 ‘라쉬트리야 스와얌세박상(RSS; 국가애국당)’ 측이 인도 RCEP 탈퇴를 계기로 한-인도 및 일-인도 간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즉시 재개정하라는 선동에 한국과 일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인도 수입업계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RSS는 하부조직인 스와데쉬 자가란 만치(SJM) 연구소를 통해 인도 정부에 한국 및 일본과 체결된 CEPA에 대해서도 불평등(faulty) 하다며 개정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국 정부 정책이 보호주의적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겁을 먹고 기업들이 가격협상에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도는 지난 11월 4일 인도의 RCEP 탈퇴결정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아요디야 유적지내 회교사원 이전 결정 등 일련의 국수주의적 행보에 극우세력이 고무돼 대정부 압박을 벌이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실제로 인도 수입기업이 한국셀러를 대상으로 언론보도만을 인용해 CEPA 효력 중지시 이전 관세율로 회귀가 우려된다며 가격인하를 일찌감치 종용하는 사례마저 발생했음

- 하지만 CEPA는 개정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비준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내년도 관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주인도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양국 간에는 그동안 수차례 협상만 있었고 CEPA 개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인도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함

작성 : 김수언

5. 인도의 남성 그루밍 시장 성장일로

- 닐슨(Niels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일용소비재 시장에서 177가지의 신규 남성 그루밍 브랜드와 제품들이 출시된 바 있음

- 주로 면도 크림, 면도 젤, 면도기 등 면도 상품들이 남성 그루밍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바디 및 헤어 케어 제품들이 약 500억 루피 규모인 도시 지역 남성 그루밍 시장에서 특히 성장세가 두드러짐

- 이는 최근 메트로섹슈얼[4] 남성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아지며 이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과 질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유명 크리켓 선수들과 영화배우들의 옷차림과 스타일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도 남성들에게 전파되며 그들의 그루밍 트렌드가 많은 인도 남성들 사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용 그루밍 관련 업체들은 턱수염·콧수염 용 샴푸·젤 등 '케어' 제품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해당 시장이 기존 '쉐이빙' 제품 시장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임

(출처 : Livemint) 작성 : 김수언

4) Metrosexua. 패션과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을 일컫는 용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